

GRACE 선교소식

2026년 8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월요일에는 우리 은혜교회가 속한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차 OC 지역 영적 대각성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역은 팬데믹 이후 많은 미자립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 현장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차세대 목회자를 세우고 미자립교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섬겨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여 섬기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171개국 3만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KWMF 한인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 이취임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리더십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방향과 미래 선교에 대해 나누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가질 때마다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섬김에 감동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사와 격려를 전해 주셨습니다.

화요일부터는 GMI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MK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8개국에서 55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자녀들을 보면서 참 순수하고 영적으로 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며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준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팀원들이 세심하게 준비하였고, 교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 부흥성회: 8/12-8/14
 - OC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8/20
 - GTD 213(남)기 인도: 8/23-8/26
-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회의 여러 부서가 함께 기도하며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다음 세대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선교의 주역들을 세우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킬레오는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겨울 잠바를 입을 만큼 쌀쌀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 때는 겨울 잠바를 사서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킬레오 공동체

어린이 공부방 겸 미니도서관이 완공 오픈했습니다. 완공 전에 철제 선반 작업 중 핸드 드라인더 날을 교체하는 중 저를 도와주는 현지인이 전원 스위치를 올려 그라인더를 놓쳐 왼쪽 발등이 깊게 파여 보름 이상을 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침대에서 해결하느라 아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직 시설이 부족하였지만 6월 초부터 시작된 방학에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책을 읽고 모자라는 공부하고 구구단도 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4학년인데도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가르치면서도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킬레오 그레이스교회

제가 움직이지 못해 새벽기도와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2주 이상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정성 어린 기도로 상처가 잘 아물어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고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케냐 은혜의 만남을 통해 새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미국 은혜한인교회 여름 성경학교(VBS) 팀을 통해 2박 3일 중등부 수련회와 곧 이은 VBS로 청소년들과 어린이의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까지 너무 바빴고 또 다리를 다쳐 너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버스 뒤에 누워 케냐까지 가면서 ‘안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가서 보니 ‘오기를 잘 했다’라는 마음에 너무 평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만남’ 기간 절뚝이며 통역하는 동안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현지 목사들, 또 교회의 리더와 함께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6월 말부터 7월까지 너무 바빴고 또 다리를 다쳐 너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버스 뒤에 누워 케냐까지 가면서 ‘안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가서 보니 ‘오기를 잘 했다’라는 마음에 너무 평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만남’ 기간 절뚝이며 통역하는 동안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현지 목사들, 또 교회의 리더와 함께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국

함00 / 김00 선교사

벌써 2026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S섬 특별집중사역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7개 선교팀들과 함께 번갈아 거의 휴식 없이 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더욱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금번 특별집중사역을 통하여 S섬 각 마을지역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 바랍니다.

혜송원 법인 3분과 함께 S섬 우물 봉헌과 말랑 봉제직훈센터 사역을 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혜송원 법인 이사장님과 2분의 이 사님들과 함께 W마을을 방문하여 우물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순교하신 전도사님



께서 사역하시던 W마을에 혜송원을 통한 너무나도 귀한 우물프로젝트가 완공되어 마을분들과 함께 은혜의 우물봉헌식을 하며 온 마을에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된 말랑 봉제직훈센터를 방문하시어 재운영 방안을 상의하였고, 정말 감사하게도 봉제직훈센터를 7월3일부터 재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시 말랑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됨이 감사할 뿐이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선교팀들과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S섬 사역을 하였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선교팀 8분과 함께 S섬 산속마을을 다니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각 마을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세족식을 하며 눈물과 기도하고, 신나는 율동을 하며 함께 뛰고 웃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차량으로 4시간 산길을 달려간 후 도저히 더 이상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오토바이 9대에 각각 나누어 타고 공포의 산길을 1시간이 더 달려들어난 정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습니다. S섬 각 마을마다 더욱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더욱 함께 기도 바랍니다.

S섬 7월 집중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이제



7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또다시 광주봉선중앙교회, 드림팀, 오륜교회의로 S팀, 시드니순복음교회, 청라감사가자라나는교회들과 연달아 S섬 특별집중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휴식기간 없이 계속되는 S섬 사역 가운데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S섬 산속마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풍성한 복음이 마음껏 흘러 들어가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중인 S섬 각 마을교회와 진행 중인 우물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현재 S섬 11개 마을에 교회가 건축 중에 있으며, 5개 마을에 우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마을교회들과 우물 프로젝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어 모든 마을분들과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직 교회 건축이 필요한 4개 마을들과 우물 프로젝트가 필요한 마을들에도 주님께서 귀한 돕는 자들을 보내 주시어 필요한 교회건축과 우물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M국

유00 / 킨 00 선교사

매주 예배와 나눔의 시간

성경 말씀을 전하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심는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들은 성



경말씀 동화를 보고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새가족 입주

이제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M국은 여전히 내전이 끝나지 않고 지속중입니다. L지역에서 내전을 피해 새로운 피난민 가정들이 저희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살, 9살된 아이들과 엄마입니다.

이달의 생일

새로 들어온 가정의 어린이가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GMI 청년 단기팀 방문

머나먼 미국에서 청년 단기팀이 선교지에 방문



하여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 나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물품으로 여러 곳에서 도움을 보내주셔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 평안히 지내고 계신지요. P국의 긴 여름과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새로운 만남

긴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과 지내는 일이 쉽지 않은 앉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현지 구세군 교회의 여름성경학교에 기쁘게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T자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T자매에게 아이들의 현지 언어 지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T자매를 무척 좋아하며 기쁜 마음으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지 구세군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좋은 선생님이자, 앞으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 줄 자매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지 동역자를 세워가는 과정

이야곱 선교사는 신실하고 성실한 F형제와 꾸준히 교제하며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F형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세워가시고, 앞으로 함께 이루실 일들이 기대되고 소망됩니다.

8월 초에는 F형제와 함께 M민족 기숙학교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예배하고, 사역의 비전을 나누어 예정입니다.

한글어학당 준비

감사하게도 대학 측으로부터 한글어학당장으로 정식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정 절차와 준비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말과 실제 진행이 다르게 느

껴질 때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함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회복과 이웃 섬김

장한나 사역자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체력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감사하게도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웃 여성들과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섬기고 있습니다.

팔복이도 김스를 풀었습니다. 다음 주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팔에 고정된 핀을 제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남은 치료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부 사역자와의 재연결

P국 북부에서 미전도종족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현지인 S사역자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주 중 북부 지역을 방문하여 S사역자와 만나 현지 상황과 사역의 필요를 듣고, 앞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동수단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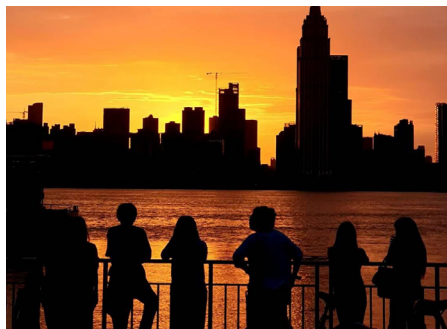
앞으로 장거리 사역지를 방문하고, 기숙학교 설립을 위한 현장 조사와 관계 형성을 위해 외곽 지역을 자주 오가야 합니다. 현재의 이동수단만으로는 장거리 이동과 비포장도로, 우천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역 현장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적합한 차량이 가장 좋은 방법과 때에 마련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C국

조OO / 윤OO 선교사

이곳의 여름은 길고 혹독합니다. 고온다습 찜는 듯한 날씨 덕에 낮에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비가 한바탕 내리고 다소 선선해진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문밖을 나섭니다.

한국문화체험관의 방문객 역시 요 며칠은 뜸해진 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올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며, 이곳이 만남과 변화의 장으로서 좀 더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한 나눔은 얼마 전 이곳의 손님으로 처음 만났던 22살 J가 지난주 일요일 자기 발로 직접 모임에 참석해 큰 도전을 받고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저를 찾아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와 동갑인 J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계속 성장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간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계속 맺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문화체험관을 통해 생명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 다양한 만남의 기회들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고 건강도 잘 관리하도록
- 부부가 기쁨과 감사로 맺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군복무 중인 두 아들(22세, 20세)을 위해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이곳 보스니아는 휴가철이라 그런지 그 많은 출퇴근 하던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러 교회로 떠날 때의 시각은 아침 7시 10분, 대부분의 카페가 아침 6시 30분 경에 문을 열면 많은 남성들이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카페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10시 경에 옷을 곱게 차려 입고 커피를 마시러 나오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휴가철이다 보니 젊은 남성들이 이른 시각부터 카페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합니다. 이렇듯 이들 문화는 커피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을 이어나갑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대화를 1시간 이상 보스니아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늘 보스니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워낙 변화가 많은 언어라서 생각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알아듣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건을 사면서 나누는 대화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야기를 하지만 일상의 심도있는 이야기나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루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꼭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기에 결국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관건입니다. 계속 언어공부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이 알아 들을 수 있으니 결국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날도 오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

치지 않고 꾸준히 제 자신이 준비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어느 때는 솔직히 지칩니다.

교회에서 설교

일년에 한 두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다리오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한다고 해서 지난 26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스니아어로 했는데 완전히 원고를 읽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을 보면서 보스니아어로 하기는 무리라서 한국어로 된 원고를 번역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스니아어로 바꾸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메세지가 제가 원했던 대로 전달되었나 봅니다. 언젠가는 보스니아어로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할 날이 오겠지요!

벤자민

늘 자주 가던 카페를 사람들의 대화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다른 카페로 옮겼습니다. 늘 똑같이 에스프레소보다 좀 연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마지막 학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독일로 돈 벌러 갈 거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부모로부터 독립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보스니아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 대부분이 독일로 돈 벌러 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 청소년을 통해서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멋지고 흰칠한 외모를 가진 벤자민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발에 푸른 눈에 키가 흰칠해도 그들의 어머니를 보면 어김없이 이슬람



복장을 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어머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신자들은 예절이 밝습니다. 더욱이 유럽인이어서 유럽의 기질과 이슬람의 절제된 모습이 신앙을 떠나서 매력적으로 세련되게 다가옵니다. 벤자민에게 종교가 뭐냐고 묻지는 않았습니. 시간이 있으면 대화나 하자고 했더니 싫어하지는 않더군요. 이런 어린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겠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죠!

상가 임대

고민이 많습니다. 피아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는데 그러려면 상가 임대는 필수입니다.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보다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임을 하든, 커피를 마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 제니차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공간이 될 재정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J국

고OO / 이OO 선교사

S 난민 학교(드림스쿨)

J국 정규학교가 일제히 방학기간이지만 S난민 학교는 쉬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과 2일간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바다에 가본 선생님들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찝통같은 교실의 더위를 식힐 수 있었던 시간이며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교회 아할람 가정에 첫째 딸 삼은 이제 고3입니다. 지난 주에 졸업시험을 치렀습니다. J국에서는 대학 진학이 어려워 S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진학해야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친척집(이슬람가정)에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과 무엇보다 주님을 만

난 신앙이 도전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는 홀로 시골에서 지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의 종교 아들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출석을 하고 있지만 80여년 땅만 파고 사셨던 분에게 말씀은 너무나 생소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 주일 1시간 30분동안 그 힘든 시간을 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십니다. 비록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

한OO / 손OO 선교사

어두운 밤이 지나 새벽이

올해 3월에 M 주에서 개종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종금지법은 강제로든 유인으로든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모두를 개종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제와 유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잘못 적용되어 허위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시 징역 7년과 벌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을 위협,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역하는 J지역에서 괴한들이 검을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습격하여 여러 명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의 사역자는 괴한이 습격하기 5분 전에 나와서 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저희 도시 한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경찰들이 다른 학교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문에 기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며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 새벽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되고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을 아이들을 집으로

G도시 마을 아이들을 수직 사역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순간 저는 옛날 교회 선생님이 저와 아이들을 선생님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게임도 하고, 함께 잠도 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며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도착하여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피자도 먹었습니다. 피자를 처음 먹어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성경 암송을 하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복음 팔찌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과 하나되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하나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조건없이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역경을 뚫고 주님의 복음이

힌두교도의 감시와 신고로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시간에 찬양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영혼이 소중하기에 마을에 찾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어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아이들은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 돌보듬 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나 주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움으로부터 유린당하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에게도 육에 필요한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총만한 사랑과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손 선교사의 교육사역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악행과 불순종으로 인해 니스웨 성읍이 마침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멸망한 이야기, 두로의 멸망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에 관한 이야기 등을 주일학생들과 나누며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 겸손과 감사의 중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며, 삶에 적용하고 잘 기억하기 위해 선포문고리, 감사메모리북 등의 만들기활동도 진행했습니다. B대학의 신학기 시작과 저희 큰아들 성민이의 입시준비시기가 맞물려 잠시 수료증 배부 및 종강식 행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총장님과 코디네이터 교수님과 함께 회의를 거쳐 다시 행정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한국어수업의 연속 및 재개를 위해 신경을 좀 더 쓰기로 했습니다. 총장님 둘째 아들은 12학년(고3)임에도 한국어수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매번 일대일투선할 교실을

옮겨 다니는 수고가 있지만 이 학교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고, 곳곳에 기도를 심고 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대학의 재무담당자 사무실 맞은 편에서 수업을 했는데, 학생이 가고 나서 그 재무담당자가 본인의 8학년(중2) 아들을 위해 개인투선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하여, 저에 대하여 가지는 선한 이미지들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B대학을 위해 뿌린 눈물의 기도가 제대로 열매맺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

여러 마을을 다니며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특히 성가대의 공연과 자원 봉사자들의 섬김은 참석한 모든 이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그들에게 희망과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모든 회중들을 영적으로 고양시켰으며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모습들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배 후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공동체 유대가 더욱 강아져졌습니다. 주님은 이번 부활절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참석한 모든 이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가 괴롭지만 장차 다가올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탄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기쁨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절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총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보건교육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문순(우기)이 오기 전에,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농사할 때 열기, 병균, 농약, 벌레 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작업 후의 위생 교육과 안전한 살충제 사용법, 부상에 대한 예방, 응급 처치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교육에 진지하게 임했고, 예배도 드리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보건위생에 필요한 선물도 나누어주고, 식사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한 교회로 초대하여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못 영혼의 육신을 돌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육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그릇

<1분단상 155-8월호>

- 김대규 장로

질 그릇, 깨지기 쉬운 토기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다(고후4:7). 이들은 공통점이 많다. 흙으로 지어졌고, 연약하며, 의존적이고,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비유는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질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가치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드러난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질그릇은 연약하기에 이리 저리 쓰다보면 금이 가고, 쪽으로 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때우기도 하고, 붙여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죄성과 시험에 노출되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을 겪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온전한 것처럼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 가려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은 채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신다. 십자가는 옛것을 버리고 참된 자신을 보게 한다. 이러한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이 드러나게 한다. 깨어짐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자 참된 회복의 시작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회개는 우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만남이 핵심이다.

질그릇이 만들어진 의도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드러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질서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를 성경은 갱신(ἡ ἀνανεοῦσθαι, 아나네우스다이, 엡4:23)이라고 말한다. 날마다 지속되는 내면의 변화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질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간다.

이는 질그릇이 보화를 담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과 거룩함에 가치를 둔 삶이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요일5:4). 믿음 안에서 끝

까지 세상과 시험과 박해를 견디어 내며,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 예루살렘성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케 된다(계21:7). 우리는 이런 쏫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종종 자신의 근원을 잊고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 하든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서도 쏫대를 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기는 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그렇다고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도 연약하기에 자칫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삶과 사역에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 아마도 이런 고난과 약함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사도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 연약함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강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존재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삶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그릇”이 되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질그릇이 된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자.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는 길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P국 이OO / 장OO 선교사

1.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한글어학당을 잘 준비하도록
2. 아이들이 T자매와 즐겁게 공부하며 현지 언어를 빠르고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3. T자매와 F형제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귀한 동역자로 함께 성장하도록
4. 다음 주 S사역자와의 북부 지역 만남과 8월 초 F형제와 함께하는 M민족 기숙학교 방문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동역의 방향을 잘 발견하도록
5. 장OO 사역자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웃 여성들을 잘 섬기고, 팔복이의 엑스레이 결과와 남은 치료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6. 가정과 사역에 필요한 안전한 차량이 가장 적절한 방법과 때에 마련되도록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1. 8월 11일부터 현지 정부학교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흙과 깨어진 바닥으로 아이들의 공부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 기도하는 중 서울 영광교회 팀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14-8/16 어린이 초청 잔치가 기쁜 천국 잔치가 되도록 그리고 안전한 섬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킬리만자로의 이번 겨울은 좀 더 춥고 낮은 또 더워져서 예배 시간이 기침소리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킬레오 은혜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2022년 4년 전에 구입한 2012년 산 중고차가 작년 우기 중에 사역을 나가다가 큰 물길을 만났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선지 자꾸 엔진쪽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더니 급기야 얼마전 흰연기가 소독차처럼 나와 정비창에 들어가보니 엔진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빨리 좋은 정비사와 부품을 구해 수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I국 한OO / 손OO 선교사

1. I국 교회가 점점 심해지는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필요한 교육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3. 한국어 사역을 통해 영혼을 전도하고 삶을 나누며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4. 새로운 사역에(현지 전도자 훈련)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도록
5.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저와 사역자들, 회사 대표님의 보안을 위해서

M국 유OO / 킨OO 선교사

1. 예수 마을의 피난민 가정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잘 지내도록
2. 새로운 가정이 예수마을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3.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언어 공부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2. 복음의 통로가 될 상가 임대 준비되어지도록
3. 네트워킹(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4. 감옥사역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J국 800 / 이00 선교사

1. 무슬림 영혼의 구원의 소망과 인내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전쟁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 되어지기를
3. 난민사역(난민학교, 가정방문, 교회개척)에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생명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5. 가족의 구원과 홀로 계시는 부모님의 삶과 건강 가운데 주님의 공화와 은혜를 구합니다.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파라과이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 (8/12-8/17)
S/L: 김동철 목사
디렉터: 이민희 장로
- 칠레 인카운터 주말수양회 & AFA 1기 리유니온 (8/14-8/17)
S/L: 안영식 목사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페루 아야쿠초 인카운터 1기 (8/16-8/23)
S/L: 이창석 목사
디렉터: 이재근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덴버 상담국 축복의 통로 (8/21-8/23)
S/L: 김영호/김정원 목사
리더: 김준규 장로
문의: 김지영 집사 (213-605-5765)
- 몽골 TD 2기 (8/29-9/8)
S/L: 한기홍 목사
렉터: 스카이 박 집사
문의: 858-335-9415
- 중미 AFA 2기 (9/6-9/12)
S/L: 송중호 목사
렉터: 이항복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O/T: 7/1(수), 웨딩채플, 7pm
- 캄보디아 인카운터 1기 (9/7-9/14)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케빈김 집사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인도개척선교 모집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O/T: 8/12(수), 7pm, 웨딩채플
- 중남미 선교 Spanish 언어기초과정 (8월 10일(월)부터 매주 8주간)
장소: VC205B
문의: 안희진 선교사 (714-519-7186)
- 네팔 QT 세미나 및 헌당예배 (10/18-10/26)
S/L: 신영자 목사
리더: 이미선 권사
문의: 조범준 집사 (714-222-8628)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